

# 서해안에서 필요한 해태양식 기술지도(II)

국립 수산진흥원 인천지원

오 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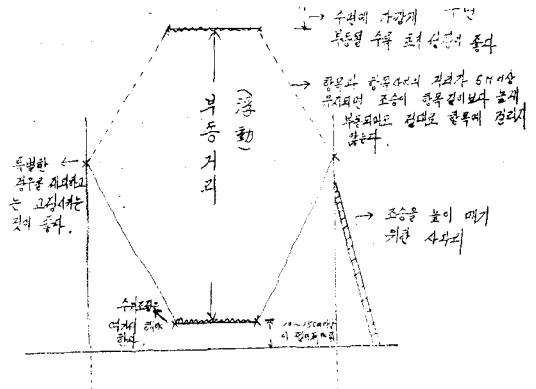
## <전호의 계속>

### <목 차>

6. 시설자재 준비
7. 건 흥
8. 초기관리
9. 해적생물 구제
10. 이식 및 증흥
11. 초회채취
12. 해태의 풍흉작 요인
13. 해태의 증기 성육관리
14. 흑한기의 성육 및 증어기 관리
15. 채취 및 제품

### 6. 시설자재 준비

해태발은 종류가 많으나 서해안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아 방흥외에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항목은 보통 참나무나 소나무를 쓰고 있으나 구하기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끈고 굵지 않으며 긴것이어야 하고 접테기를 벗기지 않은 벌채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무겁다고 절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축은 굵기가 4~5치정도가 좋은 데 시설당시에는 4M마다 1개씩 총 11개가 소요되나 부축후 성장도를 감안하여 부동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가운데 중간부축을 1개씩 더 부축하는 것이 좋고 부동이 될 수 있는 부자류를 군데 군데 부축하는 것이 좋다. 조승(매십줄)은 D.E로프 1.5~2분 굵기가 좋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것은 조승의 결속지점을 최고 높이까지 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소형 사다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7. 건 흥

농사의 경우 못자리와 같은 것으로 건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해안의 경우는 포자부착문제에는 염려 없으나 기상 및 해황에 따른 변화에 실패가 없도록 건흥일자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어장별로 건흥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계속 조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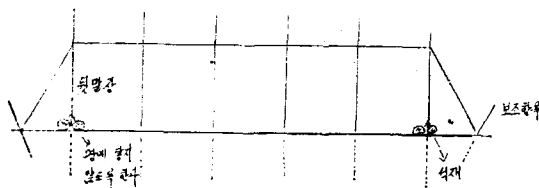
일자 (음력)	천기	기온	수온	비중	석온	유온	풍향	강우량	비고

다음은 항목을 짚아야 한다. 발 설치 15~30 일전에 짚으면 되는 데 서해안의 여건에 견디려면 다음과 같이 보조항목을 짚고 돌을 다는 것

지반별 성육시험으로 본 해태 생산량 성적표

해태 생산량(매) 홍종류별(죽종)		채취회수 및 월일						합계	생산비
		1회조 (12.6) 죽종 600본	2회조 (12.13) "	3회조 (1.14) "	4회조 (2.24) "	5회조 (3.31) "	6회조 (4.24) "		
3시간선	○ 이식시 3시간 지반에 홍 높이를 4시간에 설치	170	158	1,100	606	866	228	3,128	100%
4시간선	○ 이식시 4시간 지반에 지면으로 부터 10~15cm 떨어지게 진흙	40	129	1,479	1,268	1,013	874	4,808	154
	○ 최초 3시간 지반의 4시간 간출선에 진흙 ○ 해태 발아 확인 후에 4시간 지반으로 부터 10~15cm 떨어지게 이식	283	104	913	612	360	431	2,703	86
5시간선	○ 이식시 5시간 지반으로 부터 10~15cm 떨어지게 설치	5	13	863	1,563	1,513	978	4,935	158
	○ 최초 3시간 지반의 4시간선에 진흙 ○ 해태 발아 확인후에 5시간 지반으로 10~15cm 떨어지게 이식	140	120	747	745	371	283	2,407	77

이 좋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뒷밭장을 다른 항목보다 짧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큰 것을 사용토록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밭을 설치하는 문제이다. 계속된 관측치를 가지고 진흙일자를 결정해야 되는 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장단위로 일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일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진흙이 결정된다면 근래와 같이 기상 및 해황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아주 위험한 처사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잡태부착의 정도 수심, 연중 기온 분포등을 고려하여 밭을 설치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것은 비록 인공채묘는 못하더라도 채묘 성적이 좋은 장소에서 이식을 하는 것이 성장이 양호하고 실적이 좋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어디서 밭을 설치하던 부동거리를 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8~9월에 밭을 매는 것이 좋고 비오는 날은 금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의 경우 대체로 9월중, 하순~10

월상순으로 진흙이 실시되고 있는 데 경기도의 연중 수온분포로 보아 너무 진흙을 늦게해서는 초기 성장이 안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수온으로 볼 때 23°C에서 22°C로 하강할 때가 무난한 것이다.

사상체를 이용한 인공 채묘시에는 발이 노출되지 않는 조금시에 밭을 설치하여 3~4일 발이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며 중홍을 할 경우에는 3~5매가 적당하여 그 이상이 되면 부니의 침체가 심하여 오히려 포자부착이 부진하다.

### 8. 초기관리

채묘지에서 채묘된 밭은 가능한 육안으로 확인될 단계에 이식하는 것이 좋은 데 그 이전에 밭에 부착된 필은 수시로 털어 주는 것이 좋다. 조금시에는 조류가 약하여 필이 더 많이 부착하므로 수위를 올려 매는 것이 좋다.

또한 밭을 이식할 때는 반드시 이식전과 이식후의 여건을 비슷하게 해주어야 한다. 즉 땅의 위, 아래를 유향과 연관하여 표시해 두고 그대로 맞게 이식해야 한다. 이식후에는 즉시 부죽을 달아 부동을 충분히 해주어야 초기 성장이 빨리 되는 것이다. 기근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노출을 시켜 단련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병해징후가 있는 것이니 성

해태망의 건홍시기와 부착 해태의 종류

건 홍 시 기	우 점 종	혼 생 종
9월상순~중순	긴잎돌김(등근김)※	참김, 방사무늬김
9월하순~10월상순	참김(등근김)※	긴잎돌김, 방사무늬김
10월중순~11월상순	방사무늬김(등근김)※	참김
11월중순~하순	방사무늬김	등근김
12월~3월	방사무늬김	
4월~7월	등근김	

※ 등근김이 여름해태로서 월하하며 다수 번무한 경우도 있다.

장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

건홍해야 한다.

### 9. 해적생물 구제

해태의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피해가 큰것은 따개비 파래류 매생이 규조류(나부끼)라 하겠다. 이것은 어장환경 및 건홍방법에 따라 부착의 다과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100%로 해태만 부착하기는 힘든 일이다. 문제는 비록 부착된 해적생물이라 하더라도 조기 진단및 치료로 번식을 억제하고 해태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각 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부 구제는 가능하더라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으며 구제시기가 늦으면 더욱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보이기전까지에 구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유형별 구제방법을 살펴 보기로 하자.

#### 가. 따개비

대체로 수온 22°C 내외에 부착이 심하고 21°C 이하로는 거의 안 붙는다. 따라서 해태항목에는 무수히 부착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조기 채묘를 한 밭과 부죽 및 조승에도 부착한다. 일단 부착한 것은 커지기 전에 장갑끼 손으로 문질러 제거해야 한다.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니 한가한 시기에 어린이를 포함한 전 가족이 어장에 나가 특히 부죽 및 조승에 부착한 따개비를 제거하여 부동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개비가 시설물에 현저히 부착하였다면 건홍시기가 다소 빨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밭이 심해 비중이 높은 해는 산란이 예년보다 늦어지므로 따개비의 피해가 큰 곳은 유의하여

### 나. 파래류

파래는 보통 습하고 노출이 적으며 조류소통이 불량할 수록 많이 부착한다. 특히 부니가 많이 부착하는 곳이 심하다. 파래종류는 많지만 그중 피해가 큰 것은 납작파래와 잎파래이다. 잎 파래는 납작파래보다 일찍 부착한다. 노출선이 낮으면 잎파래가 많이 붙고 다소 높을 때는 납작파래가 많이 붙는다. 잎파래는 많이 모여서 나고 길며 편평한 엽상체이다. 몸의 하부는 매우 가늘고 가장자리는 주름이 있거나 또한 평탄하다. 표면에 다소 주름이 있다. 보통 길이는 10~20cm이고 넓이는 0.5~1.0cm이다. 색은 선록색이며 겉은 엷은 막질이다. 잎파래는 식용물김치 또는 말려서 국거리로 한다. 10월 중순에서 11월초까지 착생하고 차차 성장하여 11월경에서 다음해 5,6월경까지 엽체가 번무한다. 납작파래는 몸은 원통상이며 다소 납작하고 때로는 잘룩하다. 크기는 40cm에 달하며 가지는 보통 외가지의 원주상인데 상부는 넓게 되며 기부는 매우 가늘게 된다. 외해수의 영향이 있는 곳에 착생시기가 이른 해태밭에도 잘 붙는다. 식용으로도 하고 있다. 보통파래들은 고노출에 약해 밭아 초기에는 2시간 정도만 바짝 말리면 죽으므로 초기에는 6~7시간의 고노출선에 몇일간 발판리하여 구제토록 한다. 1~2cm 정도 성장했을 때는 밭을 육상으로 올려 1~2일 건조시키면 구제가 되나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간혹 파래를 구제한다고 밭을 너무 장기간 노출시켜 해태까지 고사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단 3cm이상 성장될 경우에는 하나

하나 뜯어 주고 잔존되어 있는 해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 밖에 없다.

#### 다. 매생이

일단 부착하면 무섭게 번식하는 것으로 제일 고질적인 해적생물이라 하겠다. 해태포자 부착이 희박한 밭에 주로 다발되므로 포자가 희박한 밭일수록 수온이 하강(18°C전후)되면 너무 노출시키지 말고 밭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일단 부착된 것은 손으로 제거하는 것외에는 구제하기 힘들니 사전에 부착이 안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몸은 관상 또는 편입상이며 짙은 녹색이다. 길이 15cm 굵기 2~5m/m까지 달하는 단조체로서 매우 연약하고 미끌 미끌용하다. 식으로도 하는데 파래보다 단맛이 있고 맛이 좋다.

#### 라. 규조류

규조류는 다갈색 또는 황록색 점질의 필처럼 보이나 그 본체는 단세포 또는 군체를 이루고 있다. 가을 봄철의 우기에 노출이 부족한 밭 조류소통이 불량한 밭에 주로 부착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태의 부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태열체에 착생하여 성장을 방해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주로 어기 종말에 임박해서 많이 발생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발생되는 수도 있다. 규조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장이 밀식되지 않게 하며 조류소통을 좋게하고 우기가 많은 시기에는 해태밭 수위를 높게하며 잘피들이 밭에 걸리면 즉시 제거해 주도록 하고 규조류는 햇볕이 강하고 수온이 높아져 생리적으로 약해진 해태나 갯병에 걸린 해태의 열체 표면에 잘 붙는다. 규조의 피해는 일시에 전체에 미치지 않고 노출이 부족한 밭의 끝부분에서 점차 중앙으로 번져간다. 일단 부착한 밭은 밭을 현 수위에서 30cm정도 높이고 그 정도가 심하면 빗자루로 쓸어주거나 펌프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둔다. 이외에도 어장에 하천수가 유입되거나 물이 높고여 있는 상태의 경우 또는 수심이 너무 깊은 노출시간이 극히 적은 밭의 경우는 이끼류나 보라틸류가 많이 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해태망에 부리를 제거하고 밭을 간석지에 부착시

키지 말 것이며 특히 어기초에는 충분한 노출을 주어야 한다.

#### 10. 이식 및 증홍

우량종묘의 확보 및 안정채묘를 위하여 해태 부착이 잘되는 곳에서 채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묘된 밭을 이식할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다. 밭의 위치를 채묘당시와 이식후의 위치가 같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조류의 방향이라던가 간출의 위치를 미리 밭에 표시해 두고 이식시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특히 열체가 큰 경우 이것이 맞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해조류란 앞 전면으로 부터 영양을 섭취하는 것인데 조류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면 해태에 불편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식하는 목적이 오히려 피해를 가져 온다고 하면 당초에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식은 전홍후 보통 20~30일 전후가 좋으나 부니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식후에는 부죽 또는 부자류를 즉시 채워 부동을 증대해야 한다.

간혹 타업무에 쫓기다 보면 전홍시기가 늦어 당황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 전홍된 밭에 증홍을 해야 한다. 단포자의 부착보다는 중성포자의 부착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밀한 포자 부착밭이 필요하다. 중성포자는 수중에서는 부착이 곤란하고 노출이 필요하므로 증홍하는 밭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비록 방출된 포자라 할지라도 유동범위가 좁기 때문에 반드시 증홍이 필요한 것이다 수온이 15°C이하로 내려가고 도저히 증홍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冬芽)채묘를 해야 한다. 방사무늬깊이나 둥근 깊은 10°C내외까지는 2차아가 계속 방출되므로 이것을 채묘하는 것이다. 수온이 13°C내외이면 11월 증순경이 될 것이므로 이전에 해태가 실패되었다면 준비된 해태밭을 전홍하도록 한다 물론 밭아일수는 어기초 보다는 늦고(보통 40~60일 정도 소요) 생산시기도 4월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1/3~2/3 생산은 올릴 수 있다.

### 11. 초회 채취

기상 및 해황에 따라 초회 채취시기가 다르지만 서해안의 경우 빠르면 11월 초중순 보통 11월 하순~12월 초순이면 초회 채취시기가 된다. 해태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상태를 감안 숙아 주는 식으로 초회채취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초회 채취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았으므로 빨리 채취해 줌으로써 염체에 활력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특히 부족되기 쉬운 영양염을 간접적으로 보충하는 일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입등을 전후한 계절로 굴값이 좋아 전 어민이 굴채취에 여념없이 초회 채취를 등한시하게 된다. 이때를 전후하여 갑자기 심한 풍파나 이상기상 및 해황이 지속되면 해태양식에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 12. 해태의 풍흉작 요인

포자만 잘 부착하였다고 풍작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해태는 한냉한 기온에도 물론 잘 견디지만 이것은 염체가 성장했을 경우이고 어린 유아의 경우는 다르다. 서리가 예고없이 일찍 닥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발아 단계에 있는 포자에 서리가 일찍 닥치면 서리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서리가 일찍 올 것을 알았다면 좀더 일찍 발을 매어 서리가 나릴 경우에 염체가 어느정도 성장되었다면 피해는 적었을 것이다. 또한 안개가 자주 끼는 경우에도 역시 흉작이 빈번하다. 특히 요즈음은 유해성 있는 부니의 영향으로 어기초에 초자가 탈락하는 것을 예지할 수 있다. 건전한 상태의 유엽이 되기까지는 서리 안개 및 부니로부터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방안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서리가 내리기 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안개가 낄 경우에는 해수로 염체를 끼얹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부니가 부착되지 않도록 자주 발을 털어 주어야 한다. 비록 포자 부착후 유엽을 거쳐 안전하게 성장을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회 채취를 일찍 해야 하나 이 시기를 즈음하여 기상 및 해황이 순조롭지 못하면 염체가 유실되기 쉽다. 흉작의 경우에는 보통 11월 초순경 소조시를 전후하여 흐린 날씨나 비가 오는 등 일기가 불순하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니가 많고 투명도가 낮은 서해안의 경우는 광합성작용에 의한 염체의 장애를 받게 되어 성육된 염체와 기근이 약하게 되어 심한 풍파를 만나면 거의 탈락되는 것이다. 반대로 풍작의 경우를 보면 서리가 늦게 닥쳐오고 안개의 출현 빈도가 적으며 10월중순을 전후하여 수온이 15°C이하로 급강하하여 점차 하강 추세를 보이면 풍작이 온다. 강추위가 올 경우에도 발이 노출안되는 소조시에 온다던가 가끔씩 비가 오는 경우도 풍작요인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발이 노출되는 주간과 야간의 기온과 해태발이 잠기는 해수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흉작이 심하고 근사하면 풍작이 된다. 즉 수중에 있을때나 노출되어서나 환경상태가 유사하면 염체의 생리적인 장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가장 무서운 피해에는 성애가 있다. 노출시 간석지에 고여있는 해수의 결빙과 연안 및 내륙수의 저 비중형성에 의한 유빙이 생성 결합되어 거대한 크기의 성애가 형성된다. 이것이 조석현상에 의해 부상되어 있는 해태발은 물론 강한 조류와 함께 항목등의 시설물까지 휩쓸어 가게 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피해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애가 발생시는 부동을 최소한도로 줄여 높이 부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성애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어장의 만 입구에 대형 Cement 봉을 지그 자그로 연결하여 유빙시 1차 제재 및 성애의 표류속도를 완화시킴이 요구되나 막대한 면적에 많은 양의 시설은 공동참여가 없는 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 13. 해태의 중기 성육관리

초회 채취를 지나 11월 중순만 지나면 해태양식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본다. 소조시를 전후하여 계속해서 시비를 하도록 하며 발의 수위

는 지면에서 10~15cm정도 떨어지게 낮추도록 한다. 밭의 부동거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조승의 결속지점을 항목의 꼭대기 부분에 해야 하며 밭에 부족이나 부자류를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을 두지 않고 자가로 김양식을 할 경우 1가구당 망홍 15책이상을 시설한다는 것은 수위조절등 어장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 시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시비를 한다는 것은 초기에는 기근을 튼튼히 하고 발육촉진을 위함이며 그후에는 성육촉진과 선택을 양호하게 하여 결국 수확량의 증대에 품질향상을 위함이다. 그러나 비료를 주는 적정시기라든가 방법이나 그 효력이 확실하지 않아 아직도 시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으나 어장의 노후화와 시설물량의 과다로 우리 어민도 앞으로는 시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때가 온 것이다. 육상 식물처럼 그 효력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사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볼때 시비를 하는 시기는 영양염이 부족되기 쉬운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으므로 고염분의 어장에서는 주로 양식기간의 중 후기에 질소가 결핍되는 것이 보통이며 질소를 해태에 흡수시키면 품질의 향상이 예상되고 또 증수도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어기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어촌계 또는 어장단위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 비료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질소와 인분이 포함된 것이면 어느 것을 택해도 좋으나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택해야 할 것이다. 공동으로 할 경우는 질소:인을 7:1 또는 10:1로 주며 들물시 양식장 바깥쪽에서 비료를 뿌리거나 용해된 비료를 보낸다. 또는 만조시에 전마선울 이용하여 어장 주위에 고루 살포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비할 경우에는 근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물비료(복살, 미원등)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분무기를 이용하여 간조시나 밀물직전에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해태가 광합성 작용을 거의 못하는 5°C이하의 낮은 수온이 될 시는 시비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

#### 14. 흑한기의 성육 및 종어기 관리

서해안의 경우 동절기에는 거의 해태가 성육 부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영하의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석온(瀉溫)을 이용한 밭관리를 해야 하므로 밭을 간석지에 깔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너무 일찍 깔으면 기근과 염체가 약하게 되고 너무 늦으면 동상등으로 위험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기온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간석지에 깔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항상 기온과 연관하여 석온및 유온(고여있는 물의 온도)을 조사하여 염체에 생리적인 장애가 오지 않도록 수시 수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밭에 뻘이 지나치게 부착한다든가 하천수나 지하수가 밭에 계속 유입되는 곳은 잡태의 부착이 심하게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닥이 순모래라든가 자갈이 있는 지역도 밭을 갈아서는 안되고 바닥의 흙이 사니질인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어기가 끝나면 항복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귀찮다고 뽑지 않는다면 소가 먹어 그만큼 내구년도가 짧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또한 해태망은 잡물이 많이 붙어 건조만으로는 깨끗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니 두엄이나 흙에다 완전 밀폐한 후 2~3일 후에 꺼내 털어 씻으면 작업이 용이하다. 이 경우는 일단 해수에다 세척후 담수에 다시 씻어 말린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15. 채취 및 제품

서해안의 경우 어기동안 보통 6~8회정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보통 6회로 보고 있다. 1회 채취가 11월 하순~12월 초순 2회채취는 12월 중~하순경이며 3회 채취는 1월 중, 하순경 4회 채취는 2월 하순경 5회 채취는 3월 하순경 6회 채취는 4월 하순으로 본다.

이것은 역시 월별 수온 및 기상 분포에 따라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본 유형별 해태 적체 시기는 다음과 같다.

축홍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망홍의 경우는

해태 적채기

종 명	적 채 기
참 김	11월 하순~2(3월)
방사무늬김	11월 하순~4(5월)
등근김	12월 상순~4(5월)
긴잎돌김	11월 상순~12월
고스지노리	11월 하순~2(3월)

채취작업이 불편하다. 보통 손으로 채취하나 또 자 부착이 불량한 경우나 엽체가 얼었을 경우는 기근 보호를 위해 가위로 절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냉시에는 성장이 부진하므로 너무 짧게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온 상승이 계속되는 3월부터는 성숙한 엽체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자주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품질을 보면 1,2,3회조는 질이 연하고 색택이 양호하며 맛도 좋다. 4회조는 수온이 하강하여 질이 단단하고 황색이 증가하므로써 중급품이 많으며, 5회조는 다시 수온상승과 더불어 품질이 향상되어 상급품으로 되다가 6회조 말기에는 점차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물론 아무리 질 좋은 원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품과정에서 부

주의나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면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없지만 질적으로 보아 서해산 해태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 일정시 각도의 생산 실적 예를 보기로 하자.

각도 적채 생산고

도별	1938년	1939년	1940년	3개년 평균	비 고
경남	620매	770	1,080	810	염, 부흥의 총평균
전남	4,480	3,670	3,300	3,620	"
전북	3,580	4,760	3,400	3,850	서선형 총평균
충남	1,620	2,380	1,740	1,910	염, 부, 서선형 총평균
황해	2,690	4,400	550	2,120	염, 부, 총평균
경기		5,422		5,422	덕적시험지 K식
		4,342		4,342	" 서선형

또한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원조를 해수로 충분히 씻는다든가 초제시에는 지하수를 쓰지 말고 2~3일전에 미리 받아 둔 물을 써야 한다든가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건조시에도 속 말리기를 먼저 한 다음 겉 말리기를 하는 등 좀 귀찮지만 생산증대와 제품향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끝)

## 漁船協會 業務와 관련된 不條理 申告는

會 長 室      7 8 2—9 7 8 0  
 常任監查室      7 8 2—9 7 8 2  
 監 查 室      7 8 2—3 8 4 7

韓 國 漁 船 協 會